

일본해에 관한 호칭 문제(미 의회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

2005년 7월

1. 일본 외무성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미 의회 도서관이 소장하는 14세기부터 19세기에 발행된 지도에서, 일본해 해역에 관한 명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일본해]라는 호칭이, 일본의 쇄국 정책 하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세기부터 유럽에 정착되어 있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였다.
2. 한편, 한국 측은 예전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결과이다”, “19세기 중엽부터 말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이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해 왔다. 한국 측은 이에 관한 근거로서, 미 의회 도서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고지도 조사를 들고 있다. 한국 측 조사에 의하면, 1800년 이전에 작성된 고지도 228점을 조사한 결과, 103점이 일본해 주변을 포함한 지도로서, 그 중 66%에 해당하는 68점이 [조선해] 또는 [동해]라고 표기하고 있었으며, [일본해]라 표기한 고지도는 14%에 해당하는 14점에 불과했다고 한다.
3. 일본 외무성이 실시한 미 의회 도서관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목적

- (1) 일본은 [일본해]라는 호칭이 정당한 호칭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일본해]라는 호칭이 현재,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 (나) [일본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도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 정착해 있었다는 점이다.
 - (다) 지리적 명명법으로도 [일본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 (2) 상기 (나)에 관한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는 일본 국토 지리원 연구자 2명이 유럽에서 발행된 200점 이상의 고지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세기 말엽까지는 이 해역에 대해 [중국해], [동양해], [조선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19세기 초엽부터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를 중심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주 1). 또한, 일본 외무성이 실시한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 소장 고지도 조사,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에서도 이상의 사실이 확인되었다(주 2). 유럽에서 발행된 지도에는 19세기 초엽부터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탐험가가 일본해 주변을 탐험하여, 일본해가 일본 열도에 의해서 태평양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지리적 형상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견해는 많은 연구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주 1: 일본 외무성 작성 일본해 팜플렛 참조

주 2: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대영 도서관 및 캠브리지 대학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프랑스

국립 도서관 소장 지도에 관한 조사” 참조

- (3) 일본 외무성은 이 주장의 정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많은 지도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미 의회 도서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19 세기에 발행된 지도에서 일본해에 관한 호칭이 정착되어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 (4) 이번 조사 배경에는 한국 측의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 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 “19 세기 중엽부터 말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지도에서 [동해]와 [일본해]라는 명칭이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 측은 이에 관한 근거로서, 미 의회 도서관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고지도 조사를 들고 있다. 한국 측 조사에 의하면, 1800 년 이전에 작성된 고지도 228 점을 조사한 결과, 103 점이 일본해 주변을 포함한 지도로서, 그 중 66%에 해당하는 68 점이 [조선해] 또는 [동해]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며, [일본해]라고 표기한 고지도는 14%에 해당하는 14 점에 불과했다고 한다.

2. 조사 개요 및 결과

(1) 조사 개요

일본 외무성은 2004 년 12 월부터 2005 년 3 월까지, 미 의회 도서관이 소장하는 지도에, 일본해 해역에 관한 명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조사는 재미 일본 대사관을 통하여, 미 의회 도서관 지리·지도부에 조사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졌다.

(나) 조사는 미 의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 중, 일본해 해역에 관한 언급이 있는 모든 지도와 지도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도를 모티프로 한 그림엽서 등, 지역 판별 이외의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 확실한 소장물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조사 대상 지도(주 1)·지도책(주 2)의 발행 시기는 미 의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가 발행된 1300 년(주 3)부터 1900 년까지로 하였다.

(라) 조사 대상 지도의 선택은 조사원들이 실제로 원 지도를 확인하거나 마이크로 필름화 된 지도책을 열람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일부 지도에 대해서만 도서 정리 번호(주 4)를 이용한 전자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미 의회 도서관이 1968 년 이전부터 소장하고 있는 지도, 지도책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서 정리 번호를 붙여서 전자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조사 대상을 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주 5).

(마)(라)를 통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지도, 지도책에 대해서는 조사원들이 실제로 열람하였으며, 일본해에 관한 호칭의 기재 상황, 발행년, 발행자 및 발행자가 소속한 국가명을 기록함과 동시에, 디지털카메라 또는 복사를 하였다.

주 1: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지도”라는 의미는, 미 의회 도서관에서 “single sheet” 또는 “sheet map”으로 분류하고 있는 단일 지도를 가리킨다.

주 2: 본 조사에서 사용하는 “지도책”이라는 의미는, 미 의회 도서관에서 “World Atlas”로 분류하는 여러 장의 지도로 구성된 지도집을 가리킨다. 동 도서관이 “World Atlas”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는, 세계 전반을 취급하는 지도책으로부터 일부 지역만을 취급하는 지도책까지 광범위한 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주 3: 미 의회 도서관 지리·지도부가 소장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는, “Empire de Mongols”라는 제목의 프랑스 발행 지도로, 발행 연도는 “1300-140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발행 연도를 알 수 없었다.

주 4: 자세한 사항은 <http://catalog.loc.gov/> 을 참조.

주 5: 이상의 이유들로, 미 의회 도서관 소장 고지도 조사에서 전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가장 객관적으로 고지도를 조사하는 방법은 본 조사에서 실시한 방법으로, 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지도를 하나씩 검증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동 도서관의 지도 조사 과정에서, 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도의 일부를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2) 결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13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발행된 지도, 지도책 가운데에서 일본해 해역을 표시하고 있는 지도는 총 1,728점이었다. 그 중, 동 해역에 관해 호칭을 기재한 지도는 1,435점이었으며, 이들 지도의 77.4%에 해당하는 1,110점이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 (나) 이들 1,435점의 지도, 지도책 가운데에서 일본해 해역을 [조선해]라고 기재한 지도는 188점(13.1%)이었으며, [중국해]가 22점(전체의 1.5%), [동양해]가 20점(전체의 1.4%)이었으며, [동해]라고 기재한 지도는 불과 2점(0.1%)이었다.
- (다) 호칭을 병기한 지도 중에서 [일본해]와 조선해를 병기한 지도는 14점(0.9%)이었으며, [일본해·동양해]는 7점(0.5%), [동양해·조선해]는 4점(0.3%), [일본해·중국해]는 1점(0.07%)이었다. 그 외 상기의 어느 호칭에도 들어가지 않는 지도가 8점(0.6%)이었다.
- (라) 지도, 지도책의 발행 연대에 주목하여 보면, 18세기까지 발행된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일본해 해역에 관한 명칭으로 [일본해], [동양해], [조선해]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발행 시기가 19세기가 되면, 이 시기에 발행된 지도, 지도책의 전체 82.4%에 해당하는 1,059점이 [일본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19세기 중에서도 일본이 쇄국 정책을 실시한 시대(편의상 1860년을 경계로 한다)에 작성된 지도 563점 가운데에 74%에 해당하는 417점이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일본해]라는 명칭은, 일본이 쇄국 정책 하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세기 초엽부터, 구미에서 정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미 의회 도서관 소장 지도 조사 결과

해당 해역 명칭	1600년 까지	1601~ 1700년	1701~ 1800년	1801~ 1860년	1861~ 1900년	합계	비율
Japan	1	3	47	417	642	1110	77.352%
Korea Sea	0	2	94	82	10	188	13.101%
China Sea	3	11	8	0	0	22	1.533%
Eastern Sea	0	0	1	0	1	2	0.139%
Oriental Sea	0	4	14	1	1	20	1.394%
Tartar Sea	0	0	0	3	0	3	0.209%
Tessot Sea	0	0	2	2	1	5	0.348%
Japan/Korea	0	0	3	11	0	14	0.976%
Japan/Oriental	0	0	7	0	0	7	0.488%
Japan/China	0	0	1	0	0	1	0.070%
Eastern/Corea	0	0	4	0	0	4	0.279%
N.D.	0	3	7	18	19	47	3.275%
No Entry	32	80	109	29	43	293	
Others	0	3	4	0	5	12	
합	36	106	301	563	722	1728	

(3) 한국 측의 조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2002년 상기 미 의회 도서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이하의 의문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 1)

(가) 한국 측의 조사는 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한국 정부가 미 의회 도서관에서 실시한 조사는, 1800년 이전에 발행된 228점의 지도를 대상으로 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나, 동 도서관에는 같은 시기에 발행된 지도는 445점이 소장되어 있어서, 한국 측이 조사한 수는 전체의 51%에 불과하다. 또한, 이 시기에 발행된 지도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전자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전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미 의회 도서관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년부터 본 조사를 실시한 2003년 동안에, 동 도서관의 지도와 지도책 소장 수가 급증하였다는 사실도 없었다.

(나) 한국 측의 조사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 한국 정부는 17-19세기에 발행된 지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명칭은 조선해, 동해와 같은 명칭으로, 확실히 한국과 관계된 명칭이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 의하면, 17-19세기에 발행된 지도와 지도책은 전부 1,692점이었으며, 그 중 실제로 [조선해], [동해]로 한국과 관계 있는 명칭을 사용한 지도는 [일본해·조선해]라고 병기한 지도를 포함하여도 235점으로, 전체의 13.9%에 불과하였다. 또한, 본 조사에 의하면, 이 시기에 발행된 지도의 62.5%에 해당하는 1,058점에서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국 관련 호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다) 더욱이, 한국 측은 “[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측의 조사에서는 한국 측 주장의 요점이 되는 20세기 전반의 지도를 조사하고 있지 않다.

주 1: 한국 정부(The Society for East Sea: The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s) 발행
“East Sea in Old Western Maps with Emphasis on the 17-18th Centuries” 및 “2000 년의
역사를 가진 동해”를 참조.

(4) 부록 데이터에 관한 설명

(가) 정리 번호(가장 왼쪽 열에 기재):

미 의회 도서관에서는 고지도가 아시아, 러시아(아시아·시베리아 지역), 러시아 중앙부, 중국, 동아시아, 일본, 조선, 대양주, 태평양, 세계로 분류 보존되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분류 소속 조사 대상 지도와 지도책에 대해 연대별로 번호를 기록하였다.

(나) 지도명, 출판자, 출판사

1) N. D.(not determined): 지도명이나 지도책의 목차 등으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기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원 지도의 파손, 분실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했음.

2) (): 해당 부분에 기재가 없음.

3) ? : 조사관의 판독이 확실하지 않았음.

(다) 출판국

출판국은 출판사가 소속하는 나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저자가 영국 국적이더라도 출판사가 프랑스 발행 지도이면, 출판국은 프랑스로 분류하였다.

(라) 출판년의 판별 방법

조사 대상이 된 지도와 지도책은 연대순으로 소장되어 있었으므로, 예를 들어 “18--”이라고 기재된 지도가 “1800”이라고 기재된 지도와 “1801”이라고 기재된 지도 사이에 보관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지도는 1800년 이후 1801년 이전에 발행된 지도로 간주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